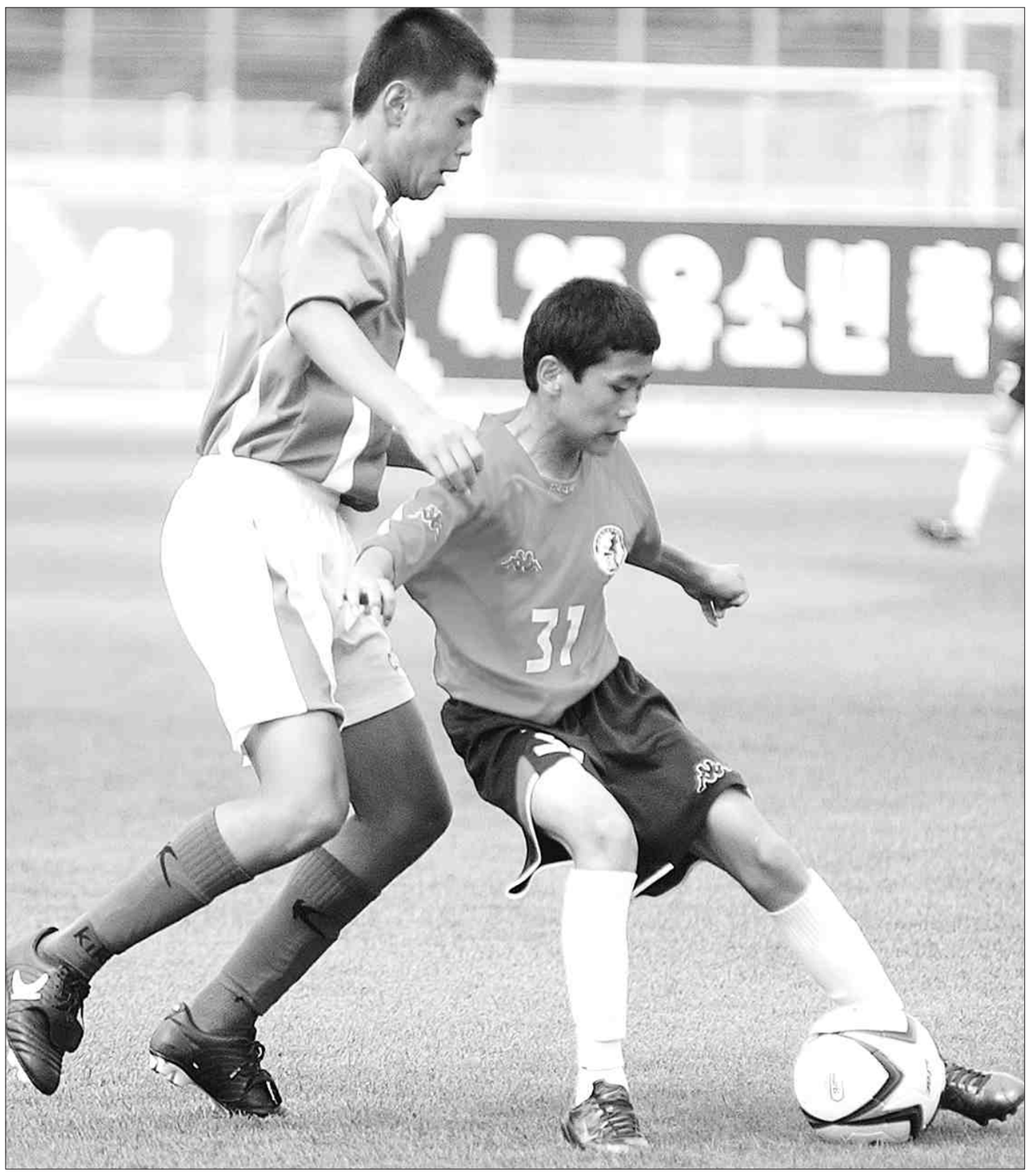

4일 강진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북한 유소년 대표팀 초청 친선축구대회에서 북한 서경진(왼쪽)과 강진중 박선민(오른쪽)이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北 유소년축구 강진서 '펄펄'

강진중 5-1 제압…내일 중등선발팀과 일전

북한 유소년 대표팀이 강진중을 5-1로 가볍게 제압했다.

북한 유소년대표팀은 4일 강진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북한 유소년(U-15) 대표팀 초청 친선축구대회에서 강진중을 5-1로 꺾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유소년대표팀은 곧바로 강진에 도착, 다산수련원에 여장을 풀고 그동안 강진 축구전용경기장에서 두차례 연습을 가졌다.

이날 전반 관중들의 응원에 약간 긴장한 듯한 북한 유소년대표팀은 골대를 맞추는 등 결정적 찬스를 여러차례 맞았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전반을 마쳤다.

강진중에 대한 탐색전을 끝낸 북한 유소년대표팀은 후반들어 김주성의 해트트릭과 리형진, 문혁의 릴레이 골을 넣으며 신일이 한골을 만회한 강진중을 5-1로 제압했다.

북한유소년대표팀은 오는 6일 한국중등연맹 선발팀과 경기를 갖고, 8일 강진중과 2차전, 11일 강진중과 3차전을 갖고,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환송만찬을 한 후 14일 중국 쿤밍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황주홍(55) 강진군수는 "이번대회 기간동안 리창명(62) 북한유소년대표팀 단장과 매년 교류전을 갖거나 북한 축구 동계훈련지로 강진을 검토하고 있어 북한 선수단이 돌아갈 때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찬호 '충격'

마이너리그서도 방출

박찬호(34)가 결국 마이너리그에서도 방출됐다. 지난 1994년 미국 땅을 밟은 후 14년만에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4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뉴욕 메츠 구단이 트리플A 뉴올리언스 제퍼스 소속인 박찬호를 이날 방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4일 메츠로부터 방출 대기(designated for assignment)를 받은 끝에 뉴올리언스 잔류를 택했던 박찬호는 불과 한 달 만에 마이너리그에서도 방출의 설움을 맛보며 메츠와 완전 결별하게 됐다.

박찬호는 뉴올리언스에서 4승4패 평균자책점 5.57을 기록 중이었고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5선발 진입에 실패한 뒤 3월31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5월1일 전격적으로 빅리그에 올라와 플로리다 말린스전에서 선발 등판했으나 4이닝 동안 7점을 내주고 패전투수가 됐다. 이날이 메츠 유니폼을 입고 뛴 마지막 경기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금주의 프로야구

더이상 추락은 안된다 안방서 날개 달자꾸나

"이번 주마저 무너지면 끝이다."

투·타에서 극심한 침체에 빠진 '꼴찌' KIA가 이번 주 안방에서 마지막 힘을 낸다. KIA는 5~7일 두산전, 8~10일 SK전 등 광주에서 열리는 6연전에서 최소 4승 2패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 만약 연패를 당할 경우 올 시즌을 포기해야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6일 '토종 에이스' 김진우의 복귀가 예고돼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프로야구의 초반을 훌쩍 넘어선 4일 현재 1위 SK부터 6위 롯데까지의 승차가 2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대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7위 현대도 6위 롯데에 1.5게임이 뒤져있어 사실상 7개팀이 3게임 안팎에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4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 K	24	20	4	0.545	-	1승
2	두산	25	21	1	0.543	0.0	2승
3	한화	24	21	1	0.533	0.5	3패
4	L G	22	21	2	0.512	1.5	2패
4	삼성	22	21	3	0.512	1.5	3승
6	롯데	23	23	2	0.500	2.0	3승
7	현대	22	25	0	0.468	3.5	1패
8	KIA	19	29	1	0.396	7.0	3패

두산·SK 상대 광주 6연전

'호랑이 회생' 여부 갈림길

김진우 복귀 팀 활력 기대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뒤바뀌는 형국속에 7위 현대에 3.5게임차, 선두 SK에 7게임을 뒤진 KIA만 순위 경쟁에서 제외돼 있다.

서정환 KIA 감독이 시즌 직전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겠다"라고 호언할 정도로 전력면에서 중위권 이상의 평가받아 온 KIA의 고전은 예상 밖이다.

투·타의 동시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다. 팀 평균 타율은 0.239로 7위에 머물러 있다. 전체 타격 30위 안에 드는 타자는 타율 0.310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현곤과 좌타자 장성호(17위·타율 0.297) 등 두 명 뿐이다.

그런데 이현곤은 타점이 7개에 불과할 정도로 찬스에 유독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영양가 없는 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또 이용규, 김원섭, 김종국, 이종범 등 발빠른 타자들도 많지만 팀 도루도 18개로 7위다. 기동력마저 뚝 떨어진다.

여기에 투수진도 무너지면서 팀 평균 방어율마저 4.32로 LG(4.39) 다음으로 높다.

현 전력대로라면 1, 2위 팀과 맞붙는 이번 광주 6연전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즌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만큼 마냥 두 손 놓고 있을 수 만도 없는 처지다.

일반적으로 프로야구에서 5할 승률을 올려야만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해 지는데 KIA는 5할 승률에서 -10게임이다. 승률도 8개팀 중 유일하게 3할대(0.396)다.

총 126게임 중 49게임을 치른 KIA는 5할 승률에 도달하기 위해선 앞으로 두 달간 최소 2승 1패씩을 반복해야한다. 그러면 32승 16패를 보태 51승1무45패로 5할 승률을 넘게 된다.

결국 이번 주 6연전은 올 시즌 KIA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결정짓는 '5할 승부'로 가는 중요 길목인 셈이다.

KIA는 김진우의 복귀와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중인 최희섭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들이 팀 전력에 얼마나 보탬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제는 '호랑이 군단'의 마지막 승부 근성에 기대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제철고 주성환 등 23명

U-17 청소년축구대표 확정

17세 이하(U-17) 8개국 국제청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할 '리틀 태극전사들'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6일 개막하는 8개국 국제대회에 출전할 23명의 대표팀 명단을 확정, 4일 발표했다.

공격수 배천석(포철공고)과 주성환(광양제철고)을 비롯해 미드필더 윤빛가람(부경고), 최진수, 김정현(현대고), 수비수 김동철(태성고) 등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멤버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국내 8개 도시에서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2007(8월 18일~9월9일)의 프레대회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울산과 수원, 고양, 천안, 창원, 광양 등 6개 도시에서 23일까지 열린다.

5일(화)

▲메이저리그〈뉴욕Y-시카고W〉(07 : 55·Xports)

▲제62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8강전(15 : 00·KBSN Sports)

▲제22회 FIBA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한국-말레이시아〉(16 : 00·Xports)

▲일본 프로야구〈지바롯데-요미우리〉(18 : 00·MBC ESPN)

▲프로야구〈롯데-삼성〉(18 : 00·KBSN Sports), 〈LG-SK〉(18 : 20·SBS스포츠)

6일(수)

▲브라질 국가대표 월드투어〈브라질-터키〉(03 : 20·SBS스포츠)